
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	
		배포일자	2023년 4월 6일(목) 총 2매		
담당 부서	에너지산업과	담 당 자	• 에너지신사업팀장 • 담당자		김 일 웅 ☎440-4301 김 계 수 ☎440-4302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15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치해 에너지 효율화 도모
-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공모 선정 ... 시·교육청·주관기관 사업추진 실시협약 체결 -
-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...유휴부지 태양광설치, 관제시스템 구축 등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은 4월 6일 시 교육청에서 ‘지역 에너지신산업 -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’을 위해 시 교육청, 주관기관인 JH에너지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이 사업은 국·공립,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.

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, 그동안 교육청과 함께 현황조사와 실무협의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했다.

총 사업비는 약 30억 원(국비 15억, 시비 7.5억, 민간자본 7.5억 원)으로, 교육시설에 △에너지통합관제시스템 구축 △태양광 발전사업 △에너지·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 △전력수요관리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물론 에너지효율화 사업도 실시한다.

이번 사업의 주요 특징은 학교 옥상 등 유휴부지에 880kW의 태양광

발전설비를 설치해 온실가스를 줄이고, 발전 사업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이다. 이를 통해 예상되는 발전 수익금은 연간 약 2억 3,000만원에 달한다.

수익금의 일부는 학교 및 민간의 태양광설비 투자자본 회수를 위해 환원되고, 나머지는 에너지 교육 및 시 기금으로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재투자함은 물론, 교육시설 등 에너지복지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.

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.

박광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“에너지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정확한 발전량을 분석하고 통합관리를 통해 에너지설비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” 이라면서, “태양광 발전수익으로 에너지사업 재투자 모델을 육성하고 지속적인 에너지 선순환을 통해 인천시가 친환경 스마트에너지 도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.” 고 말했다.

<관련사진>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

